

광양시, 2017년까지 농업에 8738억 투자

자본집약적 농업육성 등 6대 전략 126개 시책 발굴

광양시가 향후 5년간 873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업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전남도내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광양이 농업을 미래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농업 100년 기틀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인제, 물류

허브, 따뜻한 기후, 풍부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기반으로 IT농업, 자본집약농업, 친환경농업, 수출·유통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세계인구의 증가로 식량 부족과 가격상승, 각국의 식량안보 강화, 생명산업 발달로 농업의 고부

가 가치화 등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농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농업발전을 위한 6대 전략 126개 시책을 발굴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873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농업인 육성 및 벤처 농업 발굴 개발사업 23건에 351억원, 비교우위 품목, 아열대 신소득 작목 등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자본집약적 농업 육성사업 22건에 2731억원이 투입된다.

또 안전·안심 농식품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한 소비촉진 및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3건에 410억원, 농식품 가격 유지 및 수급안정, 생산자·소비자 상생 등을 위해 수출·유통 혁신사업 15건에 533

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지역 가치 증대를 위해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38건 2702억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지역 농업인의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사업 15건에도 2011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추진사항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창의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함평나비축제 성공 기원 꽃탑 설치

엑스포공원에 14m 크기

함평군이 23일 나비축제장인 함평 엑스포공원에 높이 14m 크기의 '꿈나무'와 '희망나무'에 나비축제 성공 기원의 열원을 담은 꽃탑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26일부터 5월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 전시,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하반기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균형집행 중간점검을 위해 전체집행실적, 민간집행실적, 중점사업실적, 목표역규모, 광역·기초협력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순천, 장기기증 희망자 급증

박람회 할인 혜택도 영랑

장기기증희망자에게 순천정원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최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급증하고 있다.

순천시는 23일 "지난해 330명에 불과했던 장기기증희망자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75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기증희망자에게 6만원인 순천정원박람회 시민권을 3만원에, 1만6000원인 보통권을 8000원에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놴다. 이에 따라 순천시민들이 잇따라 뇌사 후 장기기증 서약을 해오면서 등록자가 크게 늘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방문 작성하면 된다.

특히 장기기증 서약은 스스로 하는 약속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로 등록증을 직접 작성해 가족동의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바다와 관악 만남

완도 문예전당서 내일 음악회 열려

KBS 클래식FM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완도 문예전당에서 '바다와 관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서해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성진여에 김동수 교수의 지휘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등 정통 클래식을 연주한다.

또 일반인에게 친숙한 비틀즈, 아바 등의 곡도 관악 연주로 편곡한 크로스오버 곡들과 '오 솔레 미오', '희망의 나라로' 등 익숙한 음악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테너 이상규, 플루트 권혜진, 트럼펫 유병엽, 색소폰 정순섭 등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다음달 3일 오후 방송된다.

관객에게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통해 군민들이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신안 둔장마을 전통어로 잔치

신안군 자은도 둔장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고기잡이 방식을 재연한 '2013년 둔장마을 전통어로 삼합한마당 잔치'가 지난 20일 마을주민과 도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둔장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보인 만선 풍물 길놀이와 풍어 용왕제, 주민과 출항인사들이 함께한 전통어로 재연행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자은도 둔장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고기잡이 방식을 재연한 '2013년 둔장마을 전통어로 삼합한마당 잔치'가 지난 20일 마을주민과 도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둔장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보인 만선 풍물 길놀이와 풍어 용왕제, 주민과 출항인사들이 함께한 전통어로 재연행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곡성에 전국 최대 전원마을 탄생

43억 들여 109가구 입주 '강빛마을' 개촌식

죽곡면 태평지구에 조성

곡성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탄생했다.

전남도는 23일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현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허남석 곡성군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지구 '강빛마을' 개촌식을 가졌다.

강빛마을은 지난 2007년 정부의 전원마을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 지구 가운데 입주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이다. 전국 142개 전원주택 단지가 대부분이 50가구 미만인

고 100가구가 넘는 곳은 강빛마을이 최초다.

지난 2009년 사업 승인 이후 이듬해 공사에 들어가 모두 43억원이 투입됐으며 10만여㎡에 109가구, 350여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강빛마을은 보성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지세로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청정 지역이다.

전남도와 곡성군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으며 현재 20여가구가 개별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전원마을 신규 사업으로 11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머지 가구는 내년말까지 입주할 계획이며, 입주자는 주로 공직이나 중견기업 은퇴자,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강빛마을 개촌식에서 "기존 주민과 새 터전으로 이주한 입주민이 서로 훈훈한 공동체 정신으로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발전 방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운 여수경찰서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비롯한 학생들의 유해환경 요소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여수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학교주변 환경 조성 주력 여수경찰

여수경찰이 지역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2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학교주변 PC방과 주점 등을 지난 2월부터 일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23개 업소를 적발,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또 초·중·고 인근에 위치한 여수시 공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당사자 등 3명도 최근 검거했다.

정재운 여수경찰서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비롯한 학생들의 유해환경 요소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여수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새 얼굴

"4대 사회악 척결 최선 다할 것"

박승주 순천경찰서장



"'국민 행복시대'라는 목표 아래 '4대 사회악'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2일 취임한 박승주(58·사진) 순천경찰서장은 "국민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프로 의식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장은 명확히 전달하는 경찰이 됐으면 한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4대악 척결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보성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간부보정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광주청 수사과장, 보성, 광양, 해남서장, 전남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영란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요리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안정된 노후 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1577-7770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소유농지 3만㎡ 이하